

석유화학, 환경 경제효율성 “꼴찌”

지경부, 19개 업종 가운데 0.42로 최하위 ... 정밀화학은 10.12로 상위권

석유화학산업의 환경 경제효율성이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는 19개 업종, 661사를 대상으로 산업환경통계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사용 환경 경제효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12월22일 발표했다.

환경 경제효율성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가가치 창출 수준을 비교하는 척도로, 경제적 성과를 환경적 성과로 나누어 산출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사용 환경 경제효율성은 0.42로 최하였고 이어 시멘트(0.93), 철강(2.58), 섬유(4.47), 비철금속(6.0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컴퓨터의 효율성은 13.17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12.40), 조립금속(12.79), 정밀화학(10.12), 반도체(9.46)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탄소배출량 기준으로는 시멘트의 환경 경제효율성이 0.73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이 철강(1.58), 석유화학(3.25), 섬유(3.54), 비철금속(3.84) 순이었다.

효율성이 가장 높은 산업은 자동차(10.09)였고, 조립금속(8.61), 반도체(8.45), 컴퓨터(7.58)도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22>